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배포일자 2022년 4월 8일(금) 총 2매		
담당 계양공원사업소 부서 공원관리팀	담 당 자 • 공원관리담당 피용철 ☎458-7191 • 담 당 자 나연주 ☎458-7192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연희공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자 - 2022 산림치유 프로그램 본격 운영 -			

인천광역시 연희공원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‘연희공원 치유의 숲’은 다양한 숲길과 주변 생태습지의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1.6km 숲길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다.

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길걷기, 오감체험, 명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 정신적, 육체적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,

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희망의 숲, 가족과 함께하는 채움의 숲 등 단기(1회) 프로그램과 갯년기 증상완화를 위한 또봄새봄 숲, 육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생태백신 숲 등 회기(4회) 프로그램이 있다.

2021년도에는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,129명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,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중단기간

동안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참여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.

올해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 ~ 11월까지이며,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, 오후 2시에 2시간씩 진행된다.

모집인원은 1회당 10명 이내이며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/park)를 통해 예약 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희공원 산림치유센터(440-6583)에 문의하면 된다.

허흥기 인천시 계양공원사업소장은 “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연희공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사진

